

# 痰飲에 관한 형상의학적 고찰

김민정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Review on Phlegm in Hyungsang medicine

Min Jung Kim,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Phlegm is defined as the static fluid in excess in one or more parts of the body. It is not only a pathologic product but also a pathogen itself. However, as it says Phlegm is another title for the body fluid, phlegm can be physiological. In Hyungsang medicine, since the Hyungsang which an individual shows determines his or her illness, the principle to treat phlegm also vari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Hyungsang. Thus, the author reviewed 'Jisan's Special Lectures for Clinicians' and summarized the concepts and diagnostics of phlegm, and treatment and regimens by Hyungsang medicine. The concepts of phlegm : Phlegm is not only a pathologic product of disharmony of Jung(精), Ki(氣), Shin(神) and Hyul(血) but also a driving force to mature and transform these constituents. Phlegm is another designation for the Fluid. Phlegm can act as an alternative substance or buffering agent. If we describe our body as the habitat of worms, phlegm could be the inhabitant. Diagnostics of phlegm : The infraorbital areas have a dark-gray or blackish coloring. A man who is feminine or a woman who is masculine tends to develop phlegm. One of the major signs of phlegm is pain in Chungwan(中脘). The color of the skin does not change. Treatment of phlegm by Hyungsang medicine. For the Jung type(精科) and the Hyul type(血科), phlegm treatment is to supply Jung and Blood or eliminate Damp-phlegm. The man needs tonifying herbs and the woman needs herbs which promote the flow of Ki(氣). Children and the aged are, regardless of the nature of disease, to be warmed and supplemented. For the heavy man, treatment is to supplement Ki and eliminate Damp; for the slim man, treatment is to supplement Yin(陰) and purge Heat.

Key words : Phlegm, hungsang(形象), jung type(精科), hyul type(血科)

### 서론

痰飲은 체내의 과다한 수분이 어느 한 부분에 停聚된 것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결과로 발생하는 병적상태로 인식되어져 왔다<sup>1)</sup>. 그러나 병리적 상태는 생리적 상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sup>2)</sup>는 면에서 보면 “痰者津液之異名<sup>3)</sup>”이라 하여 진액으로서의 생리적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痰飲은 內經에서는 단지 적음의 說만 있고 痰症의 이름은 없으며<sup>4)</sup>, 痰이 문헌상 최초로 기록된 것은 A.D 200년경 전한시대 張仲景이 저술한 金匱要略이다<sup>5)</sup>. 痰飲의 증상은 內經에서는 消化器性疾患으로서의 胃家症狀만을 논하였으나 漢代 張仲景에 이르러 그 증상이 확대되어 四肢歷節痛, 脉沈細, 身體重痛, 目眩, 咳唾引痛, 寒熱, 腰背

痛, 目淚出 肉瞶등의 諸症狀까지 言及하였다. 그 후 痰飲의 증상은 王隱君에 이르러 더욱더 廣義의으로 확대 해석하였으니<sup>6)</sup> 사람의 모든 疾病이 대부분 痰飲에서 나온다고 하였다<sup>7)</sup>. 이와 같이 痰飲은 “飲惟停積腸胃而痰則無處不到<sup>8)</sup>”, 聚散不定, 流動不居<sup>9)</sup>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산 2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ytleee@dongeui.ac.kr Tel : 051-850-8635  
· 접수 : 2002/04/02 · 수정 : 2002/04/30 · 채택 : 2002/06/04

- 1) 尹太英 外, 痰飲과 胸痛의 文獻의 比較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14권 제2호, 1993, p. 318.
- 2) 조르주 강길림, 정상과 병리,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6, p. 67.
-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28.
- 4) 張介賓, 景岳全書(一),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 633.  
氣交變大論曰歲土太過飲發中滿食減 五常政大論曰太陽司天濕氣變物水飲內積中滿不食  
六元正紀大論曰少陰司天四之氣民病飲發 ○太陰所至爲積飲痞隔 ○土鬱之發爲飲發往下 旨真要大論曰歲太陰在泉民病飲積 ○歲陽明在泉民病胃嘔嘔有苦 ○太陰之勝飲發於中 ○太陰之復飲發於中唾吐清液 ○太陽之復飲出清水及爲噎噎 ○諸病水液澄澈清冷皆屬於寒
- 5) 鄭遇悅, 韓方病理學,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P. 58.
- 6) 上揭書, pp. 70, 71.
- 7)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28.
- 8) 張介賓, 景岳全書(一),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 634.
- 9) 李周姬 外, 痰飲에 관한 文獻의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14권 제1호,

하여 人體內에서 氣의 流行에 따라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또한 여러 疾患으로 나타난다<sup>10)</sup>. 그리고 痰飲의 外症은 脰脹 및 眼下에 煙灰黑色이 있으며, 먹는 것이 적어도 氣色이 如故하다<sup>11)</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包括的이며 廣範圍하여 많은 疾患을 兼하거나 그 主要因이 되는<sup>12)</sup> 痰飲을 形象醫學에서는 精·氣·神·血, 津液, 代替物, 蟲 等の 여러 面에서 認識하고 있으며, 診斷에 있어서는 眼下的 煙灰黑色, 肌色の 如故함, 中脘의 壓痛, 女子가 男子 같거나 男子가 女子같은 境遇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形象에 따르는 治療에 있어서는 男女, 老少, 肥瘦, 精·氣·神·血 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특히 現代 社會는 物質 文明이 急速히 發達하고 있다. 즉 이로 因하여 冷飮食이 多樣化되고 또 冷凍 保存療法이 日常化되어 차가운 飮食을 接할 機會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한 痰飲의 發生도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形이란 "積中而發外"하는 것이다<sup>13)</sup>. 즉 어떤 事物이 獨特한 모양이나 색, 향기 等の 特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特徵을 숨어 있는 어떤 屬性의 한 表現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韓醫學에서는 臟腑는 가운데에 있고 形은 밖으로 드러나 있으므로<sup>15)</sup> 몸과 얼굴의 形으로써 그 臟腑의 徵候를 觀察할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그러므로 形象醫學에서는 사람마다 形色이 다르고 그에 따라 또한 臟腑도 같지 않다고 본다. 즉 비록 外症은 같을지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므로<sup>17)</sup> 痰飲에 대한 形과 外症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形象醫學에서는 形象 그 자체가 病이다<sup>18)</sup> 라고 하며, 또한 形色脈症의 合一을 求하여 治療한다.

이에 본 考에서는 形象醫學의 觀點에서 바라보는 痰飲을 『芝山先生 臨床學特講』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론

### 1. 痰飲의 概念

#### 1) 精·氣·神·血의 欠으로서의 痰飲

精·氣·神·血이란 人體를 構成하는 基本要素로 精이란 人體를 構成하고 生命活動을 維持하는 가장 精微로운 基本物質이고, 神이란 人體의 生命現象을 主宰하는 것이고, 氣란 人體의 機能과 活動의 原動力이며, 血이란 體內物質의 構成成分을 일컫는

것이다<sup>19)</sup>. 氣는 神의 祖요 精은 氣의 아들이니 氣란 것은 精神의 根蒂가 되며<sup>20)</sup>, 또한 人間은 精生過程에서 血이 先行하고 神生過程에서 氣가 先行하면서<sup>21)</sup> 모든 萬物이 그러하듯이 人身의 精·氣·神·血도 變化 發展을 해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矛盾과 對立을 克服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삶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欠을 排除하며 사는 것으로 이것이 生活의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sup>22)</sup>. 즉 精·氣·神·血이 定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變化하고 發展하는 것은 그것의 欠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夢·聲音·言語·津液·痰飲이 된다<sup>23)</sup>. 肺는 聲音으로, 肝은 夢으로, 心은 言語로, 腎은 津液으로, 脾는 痰飲으로써 그 矛盾을 排除하니<sup>24)</sup> 不眠症이 있는 境遇, 목소리가 낡 境遇, 말을 더듬는 境遇, 땀을 많이 흘리는 境遇, 痰飲氣가 있는 境遇는 人體의 根本인 精·氣·神·血이 나쁜 것이다<sup>25)</sup>.

이와 같이 夢·聲音·言語·津液·痰飲은 精·氣·神·血의 不和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精·氣·神·血 代謝過程의 原動力이 된다.

#### 2) 津液의 異名으로서의 痰飲

津液이란 津과 液을 합한 것으로 西洋醫學의 體液과 合一되는 것이다. 이는 人體內的 正常 體液에 대한 指稱으로서 唾液·胃液·腸液과 關節腔內的 液體 뿐만 아니라 淚·涕·汗 等を 包括한다<sup>26)</sup>. 痰飲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있을 때는 害가 되지 않으나 많을 때 病을 惹起한다<sup>27)</sup>. 따라서 痰飲은 本來 人身의 津液으로<sup>28)</sup> "痰者 津液之異名 人之所恃以潤養肢體者也<sup>29)</sup>" 라고 한 것이다. 痰飲은 脾胃의 津液으로 全身을 고무 돌면서 作用을 하는 것이다. 氣血이 이것에 經由하기를 마치 사람과 道路의 關係에서와 같으니 반드시 있어야 하는 物質이다<sup>30)</sup>. 즉 사람이 痰飲의 滋養을 받기도 하므로 痰飲病은 오래도록 飮食을 攝取함이 적어도 胃氣가 卒然히 虛해지지 않아 곧바로 죽지 않는 것이다<sup>31)</sup>. 따라서 虛한 사람이 中焦에 痰이 있다고 猝地에 痰을 쳐서는 안 된다<sup>32)</sup>.

이와 같이 痰飲은 津液의 役割도 하여 다 없애서는 안되니, 痰이 많다고 하여 甚히 吐해 내면 結局은 精이 竭하여 죽게 되기도 한다<sup>33)</sup>.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뼈마디에 다 涎이란 것이 있어서 運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中風이 發生하여 涎이 위로 咽喉中으로 밀려 오르게 되면 藥으로 壓下하여서 다시 뼈마디로 돌아

1993, p. 90.

10) 丁奎萬,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85, P. 241.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31.  
 12) 尹太英 外, 痰飲과 胸痛의 文獻의 比較考察, 大韓韓醫學會誌, 第14卷 第2號, P. 318.  
 13) 中廡, 明文堂, 서울, 1981, p. 94.  
 14) 레비-스트루스, 야생의 사고,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6, pp. 68, 69. 과학적 사고는 두 가지 양식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발달 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이 자연에 접근할 때 일어나는 두 전략적 차원의 차이에서 온다. ... (중략)... 어떤 종이 독특한 모양이나 색, 향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관찰자는 그 특징이 그 특징만큼이나 독특하면서도 숨어 있는 어떤 속성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박권을 갖는 것 같다. ... (중략)... 이와 같이 '구체의 과학'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정밀 자연 과학의 성과와 다른 것일 수밖에 없었다.  
 15) 張景岳,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86. "藏居於中 形見於外 故舉身面之外狀而 可以候內之六府...."  
 16) 張景岳,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85. "此欲以體貌之形察其藏府之候也."  
 17)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72.  
 1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49.

19) 金完熙, 精·氣·神·血에 대하여, 醫林 第 204號, 1991, p. 8.  
 20)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86. "東垣曰氣者神之祖精乃氣之子氣者精神之根蒂也."  
 21) 韓東錫, 宇宙 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85, p. 264.  
 2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76.  
 2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1988, p. 308.  
 2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17.  
 2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02.  
 26) 杜鎬京, 東醫醫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79.  
 27) 醫方類聚(第十分冊),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 244. "人皆有痰, 少者不能爲妨, 多者成患."  
 28) 中醫診斷學, 吉林人民出版社, 中國, 1983, p. 136.  
 29)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28.  
 30) 李樹,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三),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433.  
 3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33.  
 32) 上揭書, p. 133.  
 33) 醫方類聚(第六分冊),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0, p. 21. "或者津液不守, 所以痰多, 吐甚痰脫, 則精竭而死矣!"

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함부로 大吐를 시켜서 目前의 快한 것을 取하면 手足이 말라버릴 憂慮가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34)</sup> 라고 하였다. 또한 痰·涎·飲 三者가 理一分殊의 分別이 있는 것<sup>35)</sup>으로 침은 脾의 液이 흘러 나와 턱에 쌓이는 것이니<sup>36)</sup> 잘 때 침을 흘리는 것은 좋지 않은 現狀이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를 治療해 주면 키가 더 잘 자랄 수 있으며<sup>37)</sup>, 『東醫寶鑑』 〈廻津法〉<sup>38)</sup>에서도 침의 重要性에 대해 말하였으니 침을 뱉지 않고 간직하여 津液으로 돌리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帶와 漏도 胃中의 痰이 쌓여서 流下하여 膀胱에 滲入한 것<sup>39)</sup>이니 오랫동안 빠지면 精血이 마르게 되어 살이 빠지거나<sup>40)</sup> 或은 陽氣가 極虛하게 된다<sup>41)</sup>.

이와 같이 痰飲이란 津液이 津液화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것은 津液이 人體의 四肢에 고루 흠어뜨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이 흠어뜨리는 作用은 人體의 부드러운 곳인 腹部의 律動運動에서 찾을 수 있다<sup>42)</sup>. 이는 水泳을 할 때 손발로 물을 헤치면 물이 다시 모이고 모이면 다시 흠어뜨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배에서 律動을 하니가 食物이 腹部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러한 作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補中益氣湯을 쓰는 것이다<sup>43)</sup>. 즉 이를 勞役으로 脾를 傷하여 升降을 잃어 痰이 생긴 境遇에 用하라 하였으니<sup>44)</sup> “腹部의 運動은 津液을 흠어뜨리고 모으는 役割을 하는데 이 機能이 약할 때 쓰는 處方이다. 다시 말하면 배에 힘이 없는 患者에게 써야 한다<sup>45)</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補中益氣湯은 腹部의 律動 運動이 弱하여 氣가 올라가지 못해서 津液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津液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46)</sup>. 또한 “腎中之水 有火則安; 無火則泛<sup>47)</sup>”이라 하였는데 이는 下元이 虛冷하여 腹部의 律動運動이 이루어지지 않아 痰飲이 生成된 것이다<sup>48)</sup>. 배는 本來 더워야 하는 곳으로 冷하면 부풀어오른다<sup>49)</sup>. 배가 나왔다는 것은 虛하다는 뜻이니, 火가 不足하여 배의 律動이 이루어지지 않아 痰이 생기는 것이다<sup>50)</sup>. 그러므로 陽이 虛하고 腎이 寒하면 冷痰이 넘쳐 올라서 昏暈하며 밤에 喘促이 많고

上氣가 된다. 八味丸 黑錫丹으로써 鎮壓해 下墜시켜야 한다<sup>51)</sup>고 하였다. 따라서 가래침을 많이 뱉는거나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은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不足되어서 오히려 陽이 虛한 것으로 보고 八味丸을 쓸 수 있다<sup>52)</sup>.

### 3) 代替物로서의 痰飲

痰飲은 人體에서 어느 部分이 除去되었을 때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 代替物을 形成하기도 한다. 따라서 子宮을 除去한 것이 欠이 된다. 子宮이 없으면 몸에서 代替物을 만드는데 食積과 痰血이 엉켜서 窠囊을 이루게 된다<sup>53)</sup>고 하였다. 즉 子宮을 떼어 내면 그 자리에 痰血 등이 形成되게 되는데, 이 때 正傳加味二陳湯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다<sup>54)</sup>. 그러므로 “食痰 卽食積痰也 因飲食不消 或挾痰血 遂成窠囊 多爲瘰癧痞滿...<sup>55)</sup>”과 “蒼朮 治痰飲成窠囊 行痰極效 又治痰挾痰血 成窠囊者...<sup>56)</sup>”에서 窠囊이란 一種의 代替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痰飲은 人體의 어느 部分이 좋지 않을 때 그 곳을 감싸주는 方式으로 保護 役割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릎이 아플 때 붓는 것은 緩衝 役割을 하기 위해서 津液을 채워주는 것이니<sup>57)</sup>, 이 때 人爲의 方式으로 물을 빼내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 4) 蟲과 痰飲

“人身中有八万尸蟲, 若无, 卽人身不成不立. 尸蟲与人俱生<sup>58)</sup>”이라 하듯이 사람은 蟲으로 이루어져 있고 蟲과 함께 산다. 즉 人身은 五穀蟲으로 되어 있으며<sup>59)</sup>, 蟲은 腸胃之間에 依支하여 살면서 사람이 實하면 害가 되지 않으나 虛하면 侵蝕하여 疾病을 이루게 된다<sup>60)</sup>.

이와 같이 사람은 菌의 집체로 해로운 菌도 있고 이로운 菌도 있는데<sup>61)</sup>, 모든 事物들은 變化를 해야 할 때 變化를 하지 못하면 해로운 菌이 생기게 되어 있다<sup>62)</sup>. 또한 물의 菌이 人體에서 吸收되지 못해서 생기는 病을 水毒이라 하며, 이 水毒이란 一種의 痰飲을 指稱한다<sup>63)</sup>라고 하였으니, 벌레가 侵入했을 때 이를 사하지 못하면 痰飲으로 變하는 것이다<sup>64)</sup>. 그러므로 人體는 蟲의 集體이며 痰飲 그 自體도 蟲이다. 蟲을 잡아먹으면 化成一이 되거나 化顯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痰飲이다<sup>65)</sup>고 하여 痰飲이 蟲이 됨을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蟲이 다 飲食의 調節 不함과 或은 魚膾와 生菜 過食에 起因하여 마침내 쌓이고 쌓여

34)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366.

35) 上揭書, p. 128.

36) 上揭書, p. 653.

37)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182.

3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27.

39) 上揭書, p. 160.

40) 傅青主·葉天士, 傅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226. “...故曰帶下, 輕則下而不多, 重則下而無度, 淋瀝日久, 遂使精血乾枯, 肌肉消瘦, ...”

4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60.

42)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155.

43) 上揭書, p. 114.

44) 李挺,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335. “脾虛不能運化者宜補中燥濕六君子湯加竹瀝薑汁勞役傷脾失升降者補中益氣湯加半夏竹瀝薑汁.”

45)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p. 223.

46)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31.

47) 傅青主·葉天士, 傅青主男女科·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p. 37.

“腎中之水, 有火則安; 無火則泛. 儂人過於入房, 則水去而火亦去. 久之, 則水虛, 而火亦虛, 水無可藏之地, 必泛上爲痰矣. 治之法, 欲抑水之下降, 必先使火之下溫, 當於補腎之中, 加大熱之藥, 使水足以制火; 火足以暖水, 則水火有既濟之道, 自不上泛爲痰矣.”

48)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161.

49) 張景岳,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2, p. 37.

“寒勝卽浮; 寒勝者 陽氣不行 爲脹滿浮虛之病 卽醫和云陰淫寒疾之類.”

50)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161.

51) 李挺,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335.

“陽虛腎寒不能收攝邪水冷痰溢上或昏暈夜喘上氣者八味丸三味安腎丸黑錫丹以鎮壓之...”

52)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19.

53)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04.

54) 上揭書, p. 346.

55)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31.

56) 張介賓, 景岳全書(一), 서울, 羅江出版社, 1987, p. 639.

57)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4.

58) 醫方類聚(第八分冊),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79, p. 27.

59)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135.

60) 醫方類聚(第八分冊),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1979, p. 28.

“此諸蟲依腸胃之間, 若人藏腑氣實, 則不爲害, 虛則侵蝕, 隨其蟲之動, 能變成諸疾也.”

61)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70.

62) 上揭書, p. 85.

63)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61.

64) 大韓傳統醫學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72.

65) 上揭書, p. 371.

66) 上揭書, p. 371.

서 濕熱을 만들고 濕熱이 熏蒸하면 痰과 痰血이 凝結하여 五行의 氣를 따라서 變化하고 모든 奇怪한 形象의 病症이 나타난다<sup>67)</sup>고 함에서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蟲痛에 痰飲의 通治藥인 二陳湯을 쓸 수 있는 것이다<sup>69)</sup>. 痰塊 또한 菌이 움직이지 못하게 뒤집어 싸서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鉞으로 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脫出し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痰塊는 人體에 해로운 菌을 울타리처럼 뺨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鉞으로 破하면 빠져나와 다룬데 가서 또 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sup>70)</sup>.

## 2. 痰飲의 診斷

痰飲의 外症은 眼胞 및 眼下에 煙灰黑色이 나타나며, 먹는 것이 적어도 肌色이 如故하다<sup>71)</sup>. 그리고 痰飲이 있으면 中脘에 壓痛이 나타나며, 女子가 男子같은 사람 男子가 女子같은 사람에게 痰飲病이 나타날 수 있다<sup>72)</sup>.

### 1) 眼下的 煙灰黑色

靨骨 以下の 입과 코는 津液을 만드는 곳으로 이것을 組織이라고 말하며, 코는 氣라 하고 입은 精이라고 한다. 또한 靨骨 以上の 눈과 귀는 運行을 擔當하니 精氣가 交合되어 눈과 귀에 의해서 運行되어 진다. 따라서 萬若에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이는 運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意味하며 곧 精氣의 交合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다<sup>73)</sup>. 즉 눈이 動하는 것은 코와 입이 있기 때문으로<sup>74)</sup> 飲食을 먹으면 코에서 흠어뜨려서 精이 쌓여 氣가 되는 법이다. 이때 흠어뜨리면 녹아서 津液이 되어야 하지만 津液化가 되지 못하고 痰飲이 되면 津液이 눈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sup>75)</sup>. 이와 같이 痰飲은 精氣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津液을 全身으로 뽑아서 흠어뜨리지 못하고 맺혀서 病이 온 것이다<sup>76)</sup>. 즉 눈가의 색이 안 좋다는 것은 구멍이 나쁘다는 뜻이 되며 이는 津液이 津液化 되지 못했기 때문이니<sup>77)</sup>, 眼胞의 痰飲은 精氣의 交合이 안되어 運行이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sup>78)</sup>. 따라서 痰飲이 있으면 눈가죽과 눈 밑에 반드시 煙灰黑色이 있다.

### 2) 肌色이 如故

一切의 痰症은 먹는 것이 적어도 肌色이 如故하다<sup>79)</sup>. 즉 痰飲의 症狀은 초기에 頭痛·發熱함은 外感 表症과 같고, 오래 되어 潮熱·咳嗽함은 內傷 陰火와 같다. 또 流注하여 肢節이 疼痛함은 風症과 같으나 肌色이 如故함이 다르다<sup>80)</sup> 라고 하여, 痰飲

에 의한 症狀들이 여러 다른 原因에 의한 症狀과 비슷할 수 있으나 肌色이 如故한 것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 3) 中脘의 壓痛

痰飲이 原因인 諸疾患을 治療하는 대표적 處方인<sup>81)</sup> 二陳湯을 살펴보면 “治痰飲爲患 或嘔吐惡心 或頭眩驚悸 或中脘不快 或發爲寒熱 或因食生冷 脾胃不和<sup>82)</sup>”라 하여 痰飲이 있으면 中脘이 나쁨을 말하였다. 또한 痰飲의 生成은 脾와 關聯이 깊으므로<sup>83)</sup> 痰飲과 中脘과의 關係를 이에서도 살펴 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人身을 토라 하며<sup>84)</sup> 脾臟 또한 토에 속하는데 토란 형틀을 말한 것이다<sup>85)</sup>. 즉 脾臟이란 사람의 形을 만드는 것이니 주물을 뜨는 주물틀과도 같다<sup>86)</sup>. 예를 들면 원숭이는 원숭이의 틀을 만들어서 쌓는 것으로 이 範疇를 脾臟이 설정해주는 것이다<sup>87)</sup>. 따라서 脾臟이 곧 形인 것이며<sup>88)</sup>, 外形의 형틀을 정해주는 것이다<sup>89)</sup>. 그런데 틀이란 다른 말로 하면 가락지라는 뜻이 되므로, 脾臟이라는 말은 人體의 運化作用을 전제하고 있다<sup>90)</sup>. 또한 ‘脾主 四末’하므로 四肢가 움직여서 脾臟의 精에 運化作用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sup>91)</sup>. 따라서 四肢가 解墮한 것은 脾精이 運行하지 않기 때문이다<sup>92)</sup>.

이와 같이 手足이 成體의 根本이 되어서<sup>93)</sup> 脾가 나빠서 四肢가 不好하기도 하는데, 이 때 手足의 軸인 中脘의 樞<sup>94)</sup>가 좋지 않아 手足을 못쓰기도 하니 『東醫寶鑑』 〈痰飲이 臂痛이 되는 境遇〉<sup>95)</sup>에서 “臂痛에 팔을 들지 못하고 或은 痛이 左右로 移動하는 症은 伏痰이 中脘에 停滯하여 脾氣가 流行하지 못하고 위로 氣와 더불어 公박하여 四肢가 脾滯에 屬하여 氣가 上昇하지 못하는 故로 上行하여 臂를 치고 脈이 沈細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脾胃가 나쁜 것은 四肢의 運行이 좋지 않은 것이고, 이는 곧 四肢의 軸인 中脘의 痰飲이 한 要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痰飲이 있으면 中脘에 壓痛이 있다<sup>96)</sup>.

### 4) 女子가 男子같고 男子가 女子같은 경우

男性和 女性은 先天的으로 肉身上에 있어서나 性質에 있어 自然天賦의 區別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이와 같이 自然的으로 區別이 있게 되어 女子는 女子의 性品을 發揮하는 것이 美德이요, 男子는 男子의 性品을 發揮하는 것이 美德이다<sup>97)</sup>.

67)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64.

68) 李梴,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1981, 서울, 大星文化社, p. 202. “諸蟲皆因飲食不節或飢飽失宜或過滯腫膈炎燔或薰莫同食以致中脘氣虛不運而成積積久成熱濕熱薰蒸痰與血凝結隨五行之氣變化而爲諸般奇怪之形若腐草爲螢是也.”

69)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262.

70)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p. 373, 374.

7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31.

7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1.

7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78.

7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85.

7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267.

7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09.

7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52.

78) 上揭書, p. 313.

79)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131.

80) 李梴, 醫學入門(外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331.

81) 조영욱 외, 이진탕 분획역스가 synaptosomal NaK ATPase와 Ca ATPase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大韓韓醫學會誌, 第18卷 第1號, 1997, p. 199.

82) 太平惠民 和劑局方, 旋風出版社印行, p. 126.

83) 張介賓, 景岳全書(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 635.

8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79.

8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p. 282.

8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82.

87) 上揭書, p. 376.

88) 上揭書, p. 93.

89) 上揭書, p. 377.

90) 上揭書, p. 180.

91) 上揭書, p. 95.

9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298.

9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33.

9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71.

95)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299.

9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248.

97) 韓南洙, 石塘韓醫學, 全南, 國際印刷工業社, 1985, p. 147.

『周易』〈家人卦〉<sup>98)</sup>에서는 “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라 하였으나 男女의 位가 各各 그 바름을 얻어야 天地陰陽의 大義인 것이다<sup>99)</sup>. 形象醫學에서는 이를 脾胃不和란 側面에서 說明하고 있다. 脾胃를 코와 口의 關係에서 보면 口는 脾에 屬하고 口는 胃에 屬한다. 즉 男子는 口가 크고 口가 작아야 하는데, 만약에 口가 크고 口가 작으면 脾胃가 나쁘기 쉬우며<sup>100)</sup> 痰飲도 생기기 쉽다. 그리고 女子가 男子같이 생기면 氣도 實하고 形도 盛하여 머리도 動하고 몸도 動하기 쉽다. 따라서 脾胃不和가 되어 痰飲이 發하는 것이다<sup>101)</sup>. 그러므로 “脾胃가 나쁘기 쉬운 사람은 男子가 女子같거나 女子가 男子같은 경우다. 이 때 二陳湯을 쓴다<sup>102)</sup>” 라고 하였다. 또한 女子가 男子같고 男子가 女子같으면 嘈雜이 發하기 쉬운데<sup>103)</sup>, 嘈雜은 痰이 火로 因하여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이므로<sup>104)</sup> 이러한 形에 痰飲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形象醫學에서는 女子가 男子같이 생기고 男子가 女子같이 생기면 痰飲의 形象으로 본다.

### 3. 痰飲의 形象에 따른 治療

#### 1) 男女와 痰飲

痰은 곧 有形의 火이며 火는 곧 無形의 痰이다<sup>105)</sup>. 火는 痰의 根本이요 痰은 火의 指標가 되니<sup>106)</sup> 痰은 스스로 動하지 못하고 火로 因하여 動한다<sup>107)</sup><sup>108)</sup>. 그러므로 火가 많으면 痰飲病이 發하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今婦人之生 有餘於氣, 不足於血 以其數脫血也<sup>109)</sup>”라 하여 女는 氣가 有餘하고, 또한 氣는 陽이므로 動하면 火가 된다<sup>110)</sup> 즉 氣가 有餘하면 이것이 곧 火이고<sup>111)</sup>, 女子는 氣가 盛하기가 늘 火病이 많다<sup>112)</sup>. 따라서 痰飲이 잘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女는 氣實하여 氣가 맺혀서 오는 痰飲病이 많이 發할 수 있다. 즉 “婦人情性執着, 不能寬解, 多被七氣所傷, 遂致‘填胸臆, 或如梅核, 上塞咽喉’<sup>113)</sup>”라 하여 氣가 鬱滯되어 생기

는 梅核氣 등의 病이 女에게 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 〈氣嗽〉<sup>114)</sup>에서는 “七氣가 쌓여서 傷해서 기침을 이루고 痰涎이 凝結하여 或은 敗絮와 같고 혹은 梅核과 같으며 咽喉를 壅塞하여 咳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으니 婦인이 많이 이런 症勢에 걸린다.” 라고 하였다. 痰飲은 氣를 運行시키면 火가 降하여 消하게 되므로<sup>115)</sup> 氣病에 二陳湯을 通用할 수 있으며<sup>116)</sup>, 氣가 實한데 쓰는 二陳湯을 女子藥이라 할 수 있다<sup>117)</sup>. 그리고 痰은 必히 火를 끼고 濕을 兼한다<sup>118)</sup>. 그러므로 痰의 本은 水요, 濕이다. 氣와 火를 얻으면 結하여 痰이 되므로<sup>119)</sup> 痰飲에 平胃散을 쓸 수 있다<sup>120)</sup>. 이와 같이 痰飲에 二陳湯과 平胃散 等を 쓸 수 있다. 그런데 半夏·南星은 性이 燥한 것이 아니라 溼을 除去시켜 痰이 생기지 않게 하고 腎의 燥함을 潤하게 해준다<sup>121)</sup><sup>122)</sup>. 즉 濕으로 因한 濡困함을 없애지게 하므로 窮極의으로는 脾를 補益하고<sup>123)</sup> 化胃도 하고 있는 것이다<sup>124)</sup>. 따라서 半夏·南星은 逐痰의 新品인데다가 氣를 扶養하는 藥劑이며<sup>125)</sup>, 平胃散은 脾·肝·腎의 濕을 除去시켜 火를 動하게 하므로 몸이 가벼워지고 痰도 덜 자게 된다<sup>126)</sup>. 그러므로 氣實한 女子에게 쓰는 痰飲藥인 二陳湯과 平胃散<sup>127)</sup>이 結局은 氣를 도와 痰을 알 수 있다.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흠어지기가 쉽고,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많이 鬱滯한다. 그러므로 男子는 氣病이 적고, 女子는 氣病이 많은 법이다. 治法은 언제든지 血을 調養하면서 그 氣를 消耗시켜주고, 男子는 氣를 調養하면서 血을 養해야 되므로<sup>128)</sup> “夫痰之滯, 乃氣之滯也. 苟不補氣, 而惟去其痰, 未見痰去而病消也.<sup>129)</sup>”라 함은 氣를 도와 痰을 除去시키는 男의 境遇에 適用된다 볼 수 있겠다.

98) 周易(利), 學民文化社, 大田, 1990, p. 87.

99) 上揭書, pp. 87, 88.

“中候張氏曰卦辭但言利女貞而象辭則曰男女正蓋離下巽上則爲家人在內卦以六居二陰得陰位則女正位乎內也在外卦以九居五陽得陽位則男正位乎外也男女之位各得其正乃天地陰陽之大義也.”

100)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133.

101) 趙成泰, 形象醫學의 臨床과 實際, 大韓傳統韓醫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集, 1999, p. 20.

10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30.

103) 上揭書, p. 190.

104)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438.

105)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 318.

“熱痰者, 痰因火盛也. 痰即有形之火, 火即無形之痰. 痰隨火而升降. 火引痰而橫行. 變生諸證. 不可紀極. 火借氣于五臟. 痰借液于五臟. 氣有餘則爲火. 液有餘則爲痰. 故治痰者必降其火. 治火者必順其氣也.”

106) 李梴,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183.

“... 火者痰之本痰者火之標故言火則痰在其中矣, ...”

107)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 326.

“痰不自動. 因火而動. 氣有餘便是火. 氣盛上湧故喘. 痰火塞胸故似食.”

108) 李梴,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三),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103.

“... 蓋痰乃風苗火靜則伏於脾火動則壅於肺, ...”

109) 楊繼傑, 皇帝內經靈樞經解, 大一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六十七年, p. 463.

110) 李梴, 編註醫學入門(外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327.

“... 氣陽也動則爲火, ...”

111)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p. 326. “... 氣有餘便是火, ...”

11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61.

113) 醫方類聚(第十分冊),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 244.

114)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p. 471.

115)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 326.  
“氣行則火降而痰消矣.”

116) 李梴, 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p. 150.

11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1.

118)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 322.

“蓋痰必挾火而兼濕. 故下氣利濕而證自平, ...”

119)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p. 326.

“... 痰之本 水也習也 得氣與火 則結爲痰, ...”

120) 張介賓, 景岳全書(一), 서울, 龍江出版社, 1987, p. 636.

“脾胃之痰有虛有實凡脾土濕勝或食飲過度別無虛證而生痰者此乃脾家本病但去其濕滯而痰自消宜二陳湯爲主治或...平胃散...皆可擇而用之.”

121) 三朝名醫方論, p. 28.

“...半夏之辛辛利二便而去濕...半行水氣而潤腎燥經曰辛以溫之是也.”

122)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3, p. 695.

“世俗皆以南星半夏爲性燥. 誤矣. 濕去則土燥. 痰涎不生. 非二物之性燥也.”

123) 上揭書, p. 694.

“今人惟知半夏去痰. 不言益脾. 蓋能分水故也. 脾惡溼. 溼則備困. 困則不能治水. 經云, 水勝則氣.”

124) 汪詒庵, 醫方集解, 成輔社, 1983, p. 118.

“半夏能和胃而通陰陽. 故內經用治不眠. 二陳非特溫膽. 亦以和胃也.”

125) 國譯石室秘錄(上), 서울, 書苑堂, 1979, p. 297.

“中氣와 中痰이 비록 서로 다르나 사실은 모두 氣虛에 起因하는 것으로서, 氣가 虛하면 자연히 痰이 많이 생기고 痰이 많으면 반드시 氣가 耗損되는 것이니, 서로 다르면서도 사실은 같은 것이다... 무릇 人夢은 본래 氣分의 伸制인데다가 또한 消痰의 妙藥이다. 또한 半夏, 南星 역시 逐痰의 新品인데다가 氣를 扶養하는 藥劑이며...”

12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249.

12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352.

12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p. 92.

129) 傅青主·葉天士, 傅青主男女科·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 36.

2) 老少와 痰飲

老人은 형틀이 무너지는 過程에 있다<sup>130)</sup>. 氣가 衰하여 風 · 寒 · 暑 · 濕 · 燥 · 火를 排除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血이 虛해서 형틀이 무너지는 것이다. 卽 老化를 防止하기 위해서 大輔하는 것이 原則이며<sup>131)</sup> 따라서 老人은 病을 직접 고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陰陽氣血이 衰退하여서 病邪가 들어가더라도 防禦할 能力이 없으므로 正道를 길러야 病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陰陽氣血이 衰退한 사람에게 직접 邪氣를 치는 藥을 쓰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므로<sup>132)</sup> 人體가 스스로 病邪를 물리칠 수 있도록 眞氣를 實하게 하고 胃氣를 強化하도록 돕 구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溫和한 藥으로 治療하는 것이 原則이다<sup>133)</sup>. 즉 人身은 胃氣로써 根本을 삼으므로 胃氣가 旺盛하면 五臟이 滋養을 받고 胃氣가 傷하면 百病이 發生하니, 久病 等에 먼저 中土를 培養하여 全身의 氣運을 疏通시켜 주면 모든 病이 好轉되는 것이다<sup>134)</sup>. 胃氣란 바로 받침대이며, 胃氣를 돕구어주기 위해 六君子湯을 쓴다. 나이가 많으면 형틀이 무너지니까 형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藥이 六君子湯인 것이다<sup>135)</sup>. 어린아이는 큰 病이 없다. 어린아이의 자라기 위해서 또는 病에 대한 抵抗力을 기르기 위해서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現象이니 앞으면 그 만큼 크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잘 크게 해주는 藥만 써주면 되는 것이요, 峻嚴한 藥을 쓰는 것은 아니다<sup>136)</sup><sup>137)</sup>.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帶下가 있는 것은 陽氣가 오르지 못해서 濕痰이 下走하여 나타나는 現像으로 보아 升陽시켜주면 되고<sup>138)</sup>, 先天病 즉 태어난 그 自體가 矛盾이 되어 發生한 경우는 仁熟散 等を 쓰면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sup>139)</sup>.

3) 肥瘦와 痰飲

肥人과 痰人에 있어서 “大槩肥白肉浮多寒濕, 瘦黑骨露多燥熱<sup>140)</sup>이라 하였으니, 肥人은 氣가 虛하여 寒을 낳고 寒이 濕을 낳고 濕이 痰을 낳으며 瘦人은 血이 虛하여 熱을 낳고 熱이 火를 낳고 火가 燥를 낳는 故로 肥人은 寒濕이 많고 瘦人은 燥熱이 많다<sup>141)</sup>. 얼굴이 희고 뚱뚱하다면 體象이 濕痰이다<sup>142)</sup>. 따라서 肉이

發達된 境遇는 濕을 調節하기도 하며<sup>143)</sup>, 또 뚱뚱하다는 것은 精이 盛한 것이고 精이 盛하면 氣虛한 것이니 益氣시켜야 한다<sup>144)</sup>. 瘦人은 “人瘦者 腠理疏通而多汗泄, 血液衰少而爲燥熱 故多爲勞嗽之疾也<sup>145)</sup>”라 하였는데 勞嗽란 盜汗이 나고 兼해서 痰이 많고 寒熱을 發한다<sup>146)</sup>. 즉 오르는 것은 陽에 屬하고 내리는 것은 陰에 屬하므로 陰이 虛하면 痰延이 위로 逆하여 그치지 않고 吐出되는 것이다<sup>147)</sup>. 따라서 燥痰에는 當然히 潤劑를 使用해야 할 것이요 萬若에 二陳湯을 投與하면 危殆하다<sup>148)</sup>. 그러므로 二陳湯은 기침을 다스리고 痰을 없애며 病根을 치는 藥이고 陰虛 · 血虛 · 火盛하여 乾기침하는데는 못쓴다<sup>149)</sup>. 즉 痰의 標만을 治하고 痰의 本을 治함에는 不足하므로 二陳湯 一方으로써 上中下 및 新暫久之 諸痰을 通治하려 하나 實效가 없었던 것이다<sup>150)</sup>. 또한 腎氣丸이 治痰의 聖藥<sup>151)</sup>이 되는데 이는 밥을 먹어서 精血이 만들어지더라도 腎의 機能이 弱하기 때문에 津液化를 시키지 못해서 온 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가래가 생기며 이는 말라들어 간다는 것을 全제하고 있다<sup>152)</sup>.

이와 같이 肥人은 濕痰이 많고 瘦人은 熱이 있으니<sup>153)</sup>, 痰을 따라서 肥滿한 症을 다스리는 수도 있고 또 痰으로 因하여 여위어지는 것은 熱이 있기 때문이다<sup>154)</sup>. 즉 肥人은 痰을 疏通하고 氣를 補해야 하며 瘦人은 火를 瀉하고 陰을 도와주어야 한다<sup>155)</sup>.

4) 精 · 氣 · 神 · 血과 痰飲

精科는 漏世되어서 病이 오고, 氣科는 흠어뜨리지 못하고 맺혀서 病이 오고, 神科는 火가 盛하여 陰이 不足하여 制御하지 못해서 病이 오고, 血科는 包하지 못해서 病이 온다<sup>156)</sup>. 또한 神科는 鬱하기 쉽고 血科가 未包하다 함은 곧 새기 쉽다는 뜻이 되므로, 氣科와 神科 또는 精科와 血科가 合하는 境遇가 많다<sup>157)</sup>.

(1) 精科 · 血科

精은 淸하지도 않고 濁하지도 않고 또 凝集되지도 않고 새지도 않는 것이 精의 狀態이다. 그러므로 精은 固本이 根本이다<sup>158)</sup>. 精이라는 것은 등그니까 멍쳐야 되는데 淸하면 病이 된다. 그래서 精科가 糖尿가 오기 쉬우며<sup>159)</sup>, 『東醫寶鑑』에서는 〈濕

130)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323.  
 131)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55.  
 13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p. 289, 290.  
 13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Ⅵ,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82.  
 134) 三朝名醫方論, p. 21  
 “氣虛者補之以甘參朮苓草甘溫益胃有健運之功用沖和之德故爲君子若合之二陳則補中微有消導之意蓋人之一身以胃氣爲本胃氣旺則五臟受滋胃氣傷則百病叢生故凡病久不愈諸藥不效者惟有益胃補腎兩途故用四君子隨症加減無論寒熱補瀉先培中土使藥氣四達則周身之機運流通水穀之精微敷布何患其藥之不效哉是知四君六君爲司命之本也.”  
 13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20.  
 136) 上揭書, p. 295.  
 13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58.  
 13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287.  
 139) 上揭書, p. 295.  
 140) 李梴,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166.  
 14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341.  
 14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 279.

14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Ⅱ,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222.  
 14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91.  
 145) 李梴, 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166.  
 146)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470.  
 147) 上揭書, p. 166.  
 148) 汪詒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p. 497.  
 149)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474.  
 150) 國譯石室秘錄, 서울, 書苑堂, 1979, p. 54.  
 15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450.  
 15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Ⅵ,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27.  
 153)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p. 96, 99, 160, 177, 267, 276, 603, 607, 〈驚悸〉, 〈癩瘡〉, 〈帶下治法〉, 〈赤白濁〉, 〈痞症治法〉, 〈腹中窄狹〉, 〈求嗣〉, 〈惡阻〉  
 154) 上揭書, p. 607.  
 155) 上揭書, p. 351.  
 15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Ⅶ, 서울, 芝山出版社, 1999, p. 280.  
 15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404.  
 15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Ⅴ,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31.  
 159)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서울, 芝山出版社, 1998,

痰滲爲遺精> 160) 이라 하였다. 糖尿는 營養分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너무 나가면 氣가 不足된다. 그러나 濕熱이 있는 사람의 境遇는 빠져나가는 것이 正常이다. 이는 自然的인 現象으로 눈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 모가 자라지 않으니까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다<sup>161)</sup>. 즉 生理的인 調節作用에 의하여 뽑아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精科는 뭉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滲泄되어서 痰飲病이 오기도 하고, 또 너무 凝集되었을 때는 이를 調節하기 위해 痰飲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2) 氣科

氣科는 方해서 잘 돌아가지 못해서 鬱滯하여 病이 생긴다<sup>162)</sup>. 氣血이 沖和하면 百病이 나지 않고 한 번만이라도 佛鬱한 것이 있으면 모든 病이 나는 것이니 鬱이란 것은 病이 맺혀서 흠어지지 않는 症이다<sup>163)</sup>. 즉 氣科에게 氣病이 오게 되므로<sup>164)</sup> 얼굴이 각진 사람은 行氣를 시켜야 하는 것이다<sup>165)</sup>. 이와 같이 氣科는 鬱滯되기 쉬운데 氣가 鬱하면 痰이 모이고 痰이 모이면 氣道를 障礙하여 運行하지 못한다<sup>166)</sup>. 氣科는 흠어뜨리지 못하니까 痰을 全제하고 있다. 그래서 氣門의 藥들은 모두 半夏가 들어 있으며<sup>167)</sup> 氣가 맺히면 痰이 盛하고 痰이 盛하면 氣가 더욱 맺혀지는 故로 調氣할 때에 반드시 먼저 痰을 疎豁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sup>168)</sup>.

## 4. 攝生과 痰飲

『素問』〈上古天眞論〉<sup>169)</sup>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天命을 누리도록 健康하지 못하고 일찍 衰殘해지는 原因 가운데 하나로 飲食에 節度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飲食을 調節하여 안을 기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찍 죽게 된다<sup>170)</sup>. 또한 天地 사이에 사람의 性命을 기르는 것은 오직 五穀 뿐이며<sup>171)</sup>, 五味는 淡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神氣가 爽靑하게 하는 것이다<sup>172)</sup>.

痰飲 發生은 飲食과 關係가 깊어 『東醫寶鑑』〈內傷變爲諸病〉<sup>173)</sup>에서는 사소한 飲食이라도 삼가하지 못하거나 혹은 食味를 厚하게 하는 것이 痰飲의 原因이 됨을 말하고 있다. 즉 膏粱炙燂<sup>174)</sup>, 辛熱油膩<sup>175)</sup>의 飲食이 모두 能히 痰飲을 發한다. 특히 痰을 일으키는 이러한 飲食 中에서도 生冷之物<sup>176)</sup>이 더욱 좋지

않으니 生것이나 찬 飲食 等を 避해야 한다. 즉 익힌 飲食을 먹어야 하며<sup>177)</sup> 과일도 冷藏庫에 들어있는 것을 바로 먹으면 좋지 않다.<sup>178)</sup> 生水를 먹어도 나쁘고<sup>179)</sup> 綠茶도 차게 먹으면 痰飲이 생기므로 따뜻하게 마셔야 한다<sup>180)</sup>. 또한 “不時不食<sup>181)</sup>”이라 하였으니 그 季節에 나는 飲食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sup>182)</sup>. 그러므로 각 季節에 나는 飲食을 먹음으로써 津液을 발양시켜야 하는데 패스트푸드를 접할 機會가 많은 요즘에는 痰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게 되었다<sup>183)</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痰飲 發生 原因 중 生冷之物이 重要的 原因이 되는데, 物質 文明의 發達로 인하여 最近에는 여러 가지 技術이 빠르게 發展하고 있다. 그리하여 冷凍 飲食이 多樣化되고 冷凍 保存 療法이 日常化되고, 또 제 때가 아닌 飲食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따라서 現代人에게 이로 인한 痰飲의 發生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한 豫防 및 治療方法이 研究 發展되어야 하겠다.

## 결론

형상의학적 관점에서의 痰飲을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및 기타 문헌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痰飲의 개념면에서 보면 痰飲이란 精·氣·神·血의 不和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精·氣·神·血을 변화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津液의 異名이고, 인체에서 대체물을 형성하기도 하며, 또한 潤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람은 蟲의 집체로 痰飲도 蟲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痰飲은 眼胞 및 眼下에 煙灰黑色이 나타난다. 肌色이 如故하다. 痰飲이 있으면 中脘에 壓痛이 나타난다. 여자가 남자같고 남자가 여자같은 경우에 痰飲이 발할 수 있다. 痰飲의 형상의학적 치료면에서는 精科·血科는 補精補血 或은 去濕痰한다. 氣科·神科는 調氣解鬱한다. 男子는 補氣하고, 女子는 行氣시킨다. 老人과 小兒는 溫補 爲主로 한다. 肥人은 益氣去濕, 瘦人은 補陰瀉火한다. 攝生과 痰飲 物質 文明의 發達로 生冷之物에 의한 痰飲의 發病이 增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p. 404.
- 160)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85.
- 161)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서울, 芝山出版社, 1996, pp. 311, 312.
- 16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404.
- 163)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487.
- 164)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서울, 芝山出版社, 1998, p. 209.
- 165) 上揭書, p13.
- 166)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275.
- 16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I, 서울, 芝山出版社, 1999, p. 192.
- 16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88.
- 169) 楊維傑, 皇帝內經素問譯解, 大一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六十七年, p. 2.
- 170) 張介賓,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pp. 27, 28.
- 17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p. 428.
- 172) 上揭書, p. 439.
- 173) 上揭書, p. 436.
- 174)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3, p. 694.  
“... 若涎者脾之液. 味美膏粱炙燂. 皆能生脾胃溼熱. 故涎化胃痰, ...”
- 175) 汪沅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p. 318.  
“過飲則肥濕. 多食辛熱油膩之物 皆能生痰, ...”
- 176) 李挺,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334.  
“... 皆因飲水及茶酒停蓄不散再加外邪生冷七情相搏成痰, ...”
- 177) 論語(地),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290. “失飪不食”
- 17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306.
- 179) 上韓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p. 24.  
“... 飲食所傷; 如暴飲冷水, 或多食生冷之物, ...”
- 180)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p. 743. “高茶; ... 飲之宜熱 冷則聚痰, ...”
- 181) 論語(地),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290.
- 182) 上揭書, p. 291. “朱子曰不時不食漢所講穿掘南芽鬱養強熱之類.”
- 183)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서울, 芝山出版社, 1997, p. 161.

5. 楊維傑, 皇帝內徑靈樞釋解, 大一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67年.
6. 尹太英 外, 痰飲과 胸痛의 文獻的 比較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14권 제2호, 1993.
7. 汪訥庵, 醫方集解, 서울, 成輔社, 1983.
8.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高文社, 1983.
9. 李周姬 外, 痰飲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제14권 제1호, 1993.
10. 李槿,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11. 張景岳,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82.
12. 丁奎萬,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85.
13. 鄭遇悅, 韓方病理學,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14. 조르주 강길렘, 정상과 병리,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6.
15. 趙成泰, 形象醫學의 臨床과 實際, 大韓傳統韓醫學會 學術大會 發表論文集, 1999.
16. 韓東錫, 宇宙 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85.
17. 韓南洙, 石塘韓醫學, 全南, 國際印刷工業社, 1985.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민중서원, 1993.
19. 조영욱 外, 이진탕 분획엑스가 synaptosomal NaK ATPase 와 Ca ATPase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제18권 1호, 1997.
20. 國譯石室秘錄, 서울, 書苑堂, 1979.
21. 論語, 大田, 學民文化史, 1990.
2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서울, 芝山出版社, 1997.
23. 三朝名醫方論.
24. 醫方類聚,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0.
25. 周易(利), 學民文化社, 大田, 1990.
26. 中庸, 明文堂, 서울, 1981.
27. 中醫診斷學, 吉林人民出版社, 中國, 1983.
28. 太平惠民 和劑局方, 旋風出版社印行.